



운문산 생태 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센터 2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펄스형 방류’와 수생태계 영향

4대강 보 수위 저하 운영계획,
“낙동강 근본대책 못돼, 늘 개방해야” (2017.2.13. 뉴시스)



출처: 뉴시스

정부가 녹조저감을 위해 낙동강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했다가 방류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하천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감소시켜 녹조발생을 줄인다는 것이다.

댐과 보를 연계해 일시적으로 물을 방류하는 펄스형 방류는 녹조제거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는 완공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적응한 수생생물들이 살고 있고, 강의 중심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주로 서식처를 마련한다. 짧은 시간 실시되는 방류에 의해 보 수위가 줄어들면 수변 생물 중 이동이 느린 조개류와 일부 수서곤충류, 설치류이류들은 물 밖으로 노출되거나 서식처가 아닌 곳으로 밀려들어가 집단 폐사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 밖으로 노출된 생물이 건조되지 않고 이동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몰 이후에 방류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동능력이 높은 어류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보 상류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수변의 얇은 물웅덩이에 갇히거나 상류로 이동할 곳을 찾지 못해 혼란한 상황이 초래된다. 물 가장자리 물풀이나 돌 밑에 붙어서 산란해 놓은 각종 생명의 알들은 ‘펄스방류’에 따른 수위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산란시기를 고려하는 것도, 종에 따라 시기가 다양해 모든 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기를 찾기가 어렵다.

물이 흐르지 않는 기간에는 수위 저하 및 어도의 가능 정지에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생태계는 종에 따라 서식한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방류 후 물 밖으로 노출된 수변은 성장속도가 빠른 수변식물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후 보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노출됐던 부위가 잠기고, 수변식물은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의 유기물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생태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어도에 갇힌 생명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중요하다.

펄스형 방류는 낙동강의 수변부에 서식하는 생물 종과 어도를 이용하는 생명들에게 현저한 위협이 된다. 수변부의 종 다양성과 개체군의 감소는 보와 연결된 큰 지천을 통해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방류할 때마다 보 내의 수중생태계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녹조해결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김구환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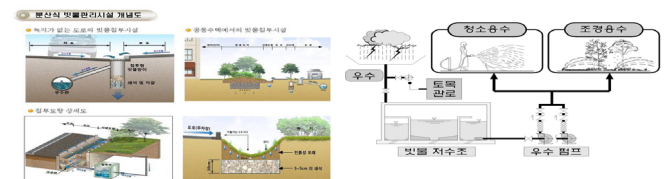
지면안내 >> 1면 뉴스다시보기&물 이야기 / 2면 기고&현장인터뷰
3면 문화&연구동향 / 4면 소식&독자소리

물 이야기

빗물 이용한 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빗물은 인위적으로 건설된 댐이나 저수지에 저장되었다가 수리 수문 시설을 통해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강우패턴이다. 우리나라는 기후특성상 여름철인 6~9월 사이에 장마가 발생하며, 이 기간에 내리는 빗물은 총 빗물의 2/3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빗물관리에 관심이 많다. 더욱이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지역에 내리는 빗물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빗물이용’이 아닌 ‘빗물관리’이다. 도시지역 빗물관리의 요체는 도시지역에 내리는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지질·지형·공간 등의 이유로 지하침투가 곤란할 경우에는 유수지나 저수탱크 등 인공적인 저수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저장한 후 천천히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홍수를 방지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천의 유지유수를 공급하여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빗물관리 및 이용 시설 (대전일보, 2012.11.30. / 홍주일보, 2012년 9월20일)

다행하게도 최근 빗물관리를 위한 빗물 저류와 이용 및 침투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치수 및 생태환경 유지용수 공급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각종 수질사고와 그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관리 시스템은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저비용 저에너지 시스템의 수자원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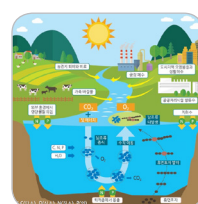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도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빗물관련 시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부분이다. 따라서 빗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결정되어야한다. 빗물관리는 도시전체, 국가전체의 일이지 개인의 일이 아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현
운산발전연구원
박사

녹조 바로 알기

부영양화와 녹조현상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라는 용어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다’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강이나 바다 등 수중생태계에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질소(N), 인(P)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지는데, 이를 ‘부영양화’라 한다. 이때 조류의 광합성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과 번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부, 2016)

함안보 조류와 남강 다목적댐의 역할



이상호
부산대학교 교수

남강댐의 계획은 1920~1925년 기간에 낙동강 종합개수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다. 당시의 개수계획은 19km의 삼랑진~물금 협소부가 밀양, 창녕, 김해, 함안, 의령 등지의 홍수피해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남강의 홍수를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써 낙동강 남지 지점의 홍수위를 0.7m 낮추는 것이었다. 남강댐은 일제의 패망과 6.25 동안 등으로 건설 중단 및 재개를 거치면서 1970년에 다목적댐으로 이어졌다. 그 후 용수수요 대처, 홍수 피해 저감, 대홍수로 인한 댐 안전의 위협 해소 등을 위해 보강댐 공사가 1999년에 완료되었다. 남강 다목적댐의 기본 기능으로서 홍수피해 경감의 치수 기능과 진주시, 삼천포시 등 경남 서부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및 수력 발전의 이수 기능이 있다.

유역 면적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남강 다목적댐은 일정 규모의 저류기능이 있으므로 댐에서 발전을 거쳐 방류되는 물은 댐 하류의 하천 유량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남강댐의 방류수를 동반한 남강 물은 함안보 상류 12km지점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합류점 하류 함안보 구간의 조류 농도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몇몇 환경기초조사 사업에서 분석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남강 다목적댐의 적절한 이수 목적 운영이 남강 합류점 하류 함안보 구간의 조류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강 다목적댐의 운영 고려 사항에 '조류'가 추가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함안보의 존재로 남강 다목적댐의 운영은 더욱 어깨가 무거워졌다. 앞으로 댐 운영이 함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용수공급과 발전 업무뿐만 아니라 수질 및 조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남강 다목적댐 운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수질과 수량 모두 중대한 사안



배현균
경남대학교 교수

정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대강 보·댐·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주요 골자는 보의 수위를 최대한 지하수계약수위까지 낮추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실시한 펄스방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따른 후속방안으로 생각되나, 개인적으로 이 방법 역시 녹조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과 수량의 문제는 모두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량 확보는 어쩌면 수질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수질정화기술은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물을 새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직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즉, 오염된 물이라도 있어야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물부족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추세다. 이는 가뭄이 지속되어 국가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형 구조상 동고서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하천들의 직류화 하천의 하상계수가 상당히 높다. 즉, 하천의 유량이 빠른 시간 내에 소실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상조건 상 5월말에서 8월초에 연간 강수량의 70~80%가 집중되고 있어, 이때 내리는 비를 저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하천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대부분의 수자원을 단시간 내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보의 상시방류 또는 철거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수량확보를 통해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수자원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우리의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자원을 우선 확보한 다음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노력과 함께 지난해의 펄스방류나 현재 실시 중인 '대강 보·댐·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방안'과 같은 수질개선 노력을 병행한다면, 낙동강 수질은 물론 녹조문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에세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아시나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지구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자연환경 보호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 운동으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하고,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불끄기 행사, 자전거 행진 등 지구사랑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의 날'이 아닌 평상시에도 지구를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함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며, 물을 아끼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습관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더워진 지구, 우리가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환경보호,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센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산 생태·경관보전 지역 탐방안내센터'를 찾아, 최은경 자연환경 해설사로부터 센터에 대해 들어보았다.

☞ 멸종위기종, 1·2급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 16종이 서식하는 운문산 일대가 환경부로부터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2010.9.9)되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생태·경관의 보전에 대한 교육

및 안내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탐방안내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수탁·운영하고 있다.

☞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진행되고 있다. 기획형 프로그램인 <운문산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관광>은 작년의 경우 공도 2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가족단위 참여 등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설사와의 교감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어려움보다는 해설사로서의 자부심과 뿌듯함이 더 크다.

☞ <숨겨진 비경을 찾아서>는 5~10월까지, <술바람이 전해주는 운문산 이야기>는 3~11월까지 운영된다. 환경교실 등 체험활동과 안내센터의 북카페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오는 것은 필수다.

따스한 봄날, 단단하게 다져진 흙길을 밟으며 운문산의 자연과 진한 솔향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eco-unmunsan.kr, ☎ 054)371-6405)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제13편> 청도천

청도천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동창천을 합류하여 밀양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며, 하천연장 41km, 유역면적 336.9㎢로 청도분지의 중앙부를 지나는 청도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맑고 푸르른 땅. 청도에는 서북쪽 발원의 청도천과 동북쪽 발원의 동창천이라는 두 개의 젓줄이 있다. 그중 청도천은 이 고을의 태동기에서부터 주민과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행하는 생명원으로서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감내했던 물길이다.

청도천은 그 배산이 비슬산이며 물기의 임수

지향점은 밀양강과 낙동강이다. 비슬산에서 발생하는 일원으로서 낙동강에 합수되는 것이다. 청도천 발원지구의 이해물길은 금천리 '금천저수지'쪽의 물과 오산리의 '오산지'가 두 줄기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중간을 치솟듯이 물길을 트여낸 송내골의 송내샘에서 발원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청도천의 발원샘인 송내샘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박하다. 계곡 한편에 뿌리깊이 내려앉은 바위틈새를 가르며 모여든

물은 어쩌면 옥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들의 어머니 모습과도 같다.

청도는 동쪽으로 경주와 울산, 서쪽에는 창녕, 남쪽으로는 밀양과 부산을, 북쪽으로는 대구와 돌레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비슬산(1,084m)은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지역의 진산이다. 송내골 계곡 꼭지점의 험터재와 원계재 중간쯤 계곡에 다소곳하게 들어앉아 있는 듯 없는 듯 맑고도 차디찬 발원수를 조용히 용출하고 있다. 청도천 발원지구인 각북면 금천리와 오산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경계 짓는 비슬산의 동쪽 마루금 아래에서 꼭지물터다운 지하수를 품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가창댐을 만들어내는 대구의 용계천 발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야말로 비슬산의 가장 왕성한 물자리터인 것 같다.



(사)낙동강공동체대표 김상화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낙대폭포 오르는 길에서 힐링의 느낌을



청도 팔경의 하나인 낙대폭포(落臺瀑布)는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남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이 30여m의 폭포로 기암괴석이 들선 깊은 계곡에 웅장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 가운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물소리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 봄에는 만개한 벚꽃과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과 하얗게 부서지는 물방울이 더위를 잊게 한다. 가을이면 오색의 단풍이 풍벽을 이루고 겨울에는 빙벽을 이룬 모습이 거대한 은병풍을 두른 듯하다. 특히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하여 약수폭포(藥水瀑布)라고도 하며, 매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낙대폭포 안내소 입구에 세워진 현판의 내용이다)

취재팀이 찾은 낙대폭포 주변에는 가늘게 떨어지는 물을 만날 수 있었으나, 폭포 아래에서 물을 직접 맛보는 체험을 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안내소를 지나 폭포까지 오르는 길에 돌길에 길게 이어져 맨발로 걸으며 발마시지를 할 수는 있었다. 여름철에 폭포를 찾으면, 더위를 말끔하게 잊을 만큼 시원할 것 같다.

▶ 먹거리

청도하면 추어탕이 생각난다. 하지만 계절에 맞는 먹거리를 찾는 것 또한 여행의 즐거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마니리가 한창인 봄, 마니리를 직접 재배하는 단지 주변에서 삼겹살과 함께 싸먹는 싱싱한 마니리 맛이 일품이다.



연구동향

● 경남·부산·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동남권 지역 내 멸종위기야생동물 분포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연구 추진

경남·부산·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동남권 지역 내 멸종위기야생동물 분포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연구를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국내에는 포유류 및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에 포함된 246종이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 보호·관리되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분포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파악되어 유역차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국단위로 분포조사가 이루어진 멸종위기야생동물 역시 상세한 분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분류 및 수변 지역에서 관찰되는 주요 포유류 및 어류, 조류의 종류와 분포를 파악하고, 각 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평가 및 이해함으로써 멸종위기야생동물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본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종 복원과 국토환경개발도로개설, 매립, 준설 등 시 서식지 훼손 방지 및 대안제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현안과제 추진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태화강 생태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2017년 3월부터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여가문화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외 휴양 활동의 관심이 높아지고, 체험형 생태관광 등 특화된 여가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 태화강이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태화강 생태관광자원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계량화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화강생태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화강생태관광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태화강생태관광지의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Now

「시민과 함께하는 물산업 아카데미」 - 물산업 기자단 위촉! 물산업 제대로 알기 소양교육 실시!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물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떠오르는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첫 시작은 대구·경북지역 물산업 관련 대학생을 공고로 통해 모집하여 「물산업 기자단」 위촉, 「물산업 제대로

알기 소양교육」 1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물산업 기자단을 통해 매일 물산업 관련 기사를 기고하여 시민들에게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널리 알리고, 「물산업 제대로 알기 소양교육」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전문 홍보단을 양성한다.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3월 22일(수) 부산광역시청에서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를 “물!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곳에서 흐른다(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고,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의 ‘낙동강 상수원(물이용부담금 포함) 이대로 괜찮은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정훈 팀장의 ‘부산광역시 「취수원 다변화」 추진현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내 곳곳에서 도심하천 환경정화, 물절약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날로 심화되어가는 물 부족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 교육」 실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3월 16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113호 세미나실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 교육」을 진행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로, 울산지역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안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류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Festival



출처: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홈페이지

▶ 팔공산벚꽃축제(4.12~4.16, 대구시 동구 팔공산동화지구 분수대광장 일원) ▶ 창녕낙동강유채꽃축제(4.14~4.18, 경남 창녕군 남지유채단지 및 남지체육공원 일원) ▶ 부산과학축전(4.15~4.16, 부산시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일원) ▶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4.15~4.23, 부산시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원) ▶ 의령의날기념축제(4.21~4.23, 경남 의령군 충익사 등 의령읍 일원) ▶ 기장멸치축제(4.21~4.23,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일원) ▶ 형형색색달구벌관동놀이(4.22~4.22,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시내 일원) ▶ 비슬산참꽃문화제(4.22~4.30,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 와룡문화제(4.28~4.30, 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 ▶ 문경전통차사발축제(4.29~5.7,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 ▶ 황매산철쭉제(4.30~5.14, 경남 함안군 및 산청군 황매산국립공원 일원) ▶ 울산웅기축제(5.4~5.7, 울산시 울주군 웅기마을 일원) ▶ 의성세계연꽃제(5.6~5.7, 경북 의성군 위천 생태하천 일원)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대구·경남·울산·경북·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0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오산관 404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3-580-6291 | Fax 053-580-6292 | degec@degec.or.kr

News Room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자연생태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부산지역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부산지역 자연생태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연생태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4월 11일부터 개최한다.

숲 해설가 및 환경강사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육 전반에 걸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교육생의 자연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과 숲 해설 능력 향상을 통한 강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bge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물사랑이끄미 양성프로그램」 추진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물사랑 이끄미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중학교 및 학생동아리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소양교육, 환경분야의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낙동강 사랑과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생활 속 물사랑 실천의지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빈병 보증금 제도」 안내

2017년 들어 정부는 병의 규격에 따라 빈병 보증금을 50원에서 80원까지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반환을 활성화시키고 병의 재사용 증가와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빈 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매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의무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빈병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빈병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 맡겨놓은 빈병 보증금, 꼭 돌려받도록 하자.